

“집중 호우·폭염에 무탈하십니까”

유정복 인천시장, 계양구 현장 찾아 실재 점검 지하차도 배수펌프·차단시설 등 방재시설 확인 효성동 쪽방촌 독거노인 방문해 건강 살피기도

인천광역시 2일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계양구 내 집중호우 및 폭염 취약 현장을 방문해 주요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취약 계층 보호 실태를 점검했다.

인천시는 이날 유정복 시장이 계양구에 위치한 계양지하차도를 찾아 배수펌프·전기실·진입 차단시설 등 주요 방재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하절기 집중호우 시 도로 통제 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계양지하차도는 1998년 준공된 이후 운영 중이며 현재 3대(11kW·15kW·22kW)의 배수펌프와 폐쇄회로(CC)TV 7대, 진입차단시설 2대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올해 6월 새로 설치된 진입차단시설은 침수 수위가 15cm를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차단이 된다.

이 시스템은 차량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집중호우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자연재해 등 사고를 대비한 장치다.

유 시장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인명 피해를 막는 최선의 길이다”라며 “지하차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각 기관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실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은 효성동 쪽방세대를 찾아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상태와 주거환경을 살피고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생활 여건과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을 점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일 계양구 계양지하차도에서 집중호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인천시

현재 인천시에는 중구 44명, 동구 138명, 계양구 69명 등 총 251명의 쪽방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시는 군·구 및 쪽방상담소와 협력해 생계 및 의료지원, 긴급구호, 폭염 대응 물품 제공 등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있다.

유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폭염, 한파,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장 먼저 위협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고 밝혔다.

그리면서 “인천시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기자 yhkim@skyedaily.com

“집중호우·산사태, 만반의 준비” 고양, 취약지역 사방사업 진행

고양특례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3월부터 6월 말까지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진행하고 3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산사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우기 전 사방사업을 완료해 여름철 강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마쳤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 시 산지의 토사나 무 및 암석 등이 유출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사방댐 설치·계류보전작업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인근 마을이나 도로·주거지에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덕양구 지족동 산사태 취약지역에 사방댐 1개소와 계류보전 0.1km를 신규 설치했다. 또한 지난해 대자동에 축조된 사방댐에 쌓인 토사물을 제거하는 등 준설작업을 진행했다.

김정운 기자 jukim@skyedaily.com



고양시는 집중호우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완료했다.

고양특례시

“나에게 새빛톡톡은... 000다” 수원 시민 플랫폼 2주년 행사

수원특례시가 모바일형 시민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개시 2주년을 맞아 27일까지 풍성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일 밝혔다.

새빛톡톡 회원 누구나 새빛톡톡 앱 상단 배너를 눌러 참여할 수 있다. ‘나에게 새빛톡톡은 0000다’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답을 입력하면 된다. 지난달 16일 이전 가입자는 약관 변경 동의 후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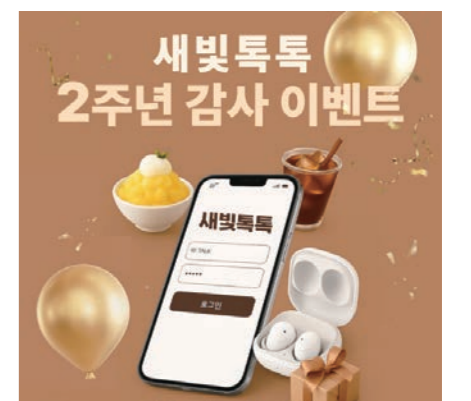
설문 참여자 중 추첨으로 갤럭시 버즈 3(2명)·빙수 모바일상품권(20명)·커피 모바일 상품권(200명) 등 경품을 지급한다.

이재준 수원시장 취임 이듬해인 2023년 7월1일 서비스를 시작한 새빛톡톡은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 시민들은 새빛톡톡으로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다른 시민과 댓글로 토론할 수 있다. 좋은 제안은 토론을 거쳐 정책화한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된다.

새빛톡톡은 2년 만에 가입자 수 13만 명을 돌파했고 시민 제안 접수는 3300건을 넘어섰다. 검토를 거쳐 승인된 의견은 ‘시민 제안’ 게시판에 노출되는데 747건이 승인됐다. 30일 동안 100개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한다.

정책으로 채택된 제안은 69건이다. 지금까지 공감 총수는 14만5000개에 달할 수는 78만7000개에 이른다.

김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수원특례시가 시민참여 플랫폼 새빛톡톡 개시 2주년을 맞아 감사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원시

경기, 전국 첫 AI 등록제 시행... “투명·신뢰 높여”

시·군·기관 인공지능 사업 해당... 정보는 둘째 주부터 확인

경기도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경기도 인공지능(AI) 등록제’가 지난달 시범 운영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갔다.

AI 등록제는 AI기술의 불투명성과 신뢰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 실시하게 됐다.

도는 AI 등록제에 앞서 올해 5월 경기도·시·군·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AI 사업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지난

달에는 경기도청 누리집 내 전용 사이트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을 마쳤다.

3월 경기도에 따르면 공개 대상은 도와 시·군·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기반 사업이 해당한다.

주요 항목은 △AI 서비스명 및 운영 기관 △도입 배경 및 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및 출처 △AI 알고리즘 및 작동 원리 △성과와 윤리적 고려사항 △개인정보 처리 여부 등이다.

공개된 정보는 7월 둘째 주부터 경기도청 누리집의 ‘소통·참여→경기도민 공유

→경기도 AI 등록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가 행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확대되고 있어 공공이 사용하는 AI에 대해 도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기도 AI 등록제를 통해 AI 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윤리적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전담 부서인 AI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안전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가고 있다.

김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경기도 AI 등록제’가 6월 시범운영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스카이데일리

“中企人 자긍심 고취”... 인천중소기업인대회 성료

인천광역시 2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주관으로 ‘2025년 인천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는 이번 대회는 ‘힘내라 중소기업!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사회 공헌 등 인천 지역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지옥 인천지방조달청장, 인천지역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및 유공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한 모범 중소기업인,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이날 총 89점의 유공 포상이 수여됐으며 이상훈 에스씨엘 대표이사, 금담 산업훈장을, 유해규 한국전광 대표이사, 은담 산업훈장을 각각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유 시장은 “중소기업은 인천시 전체 기업의 99%, 일자리의 88.7%를 차지하는 인천 경제의 중심축이자 든든한 버팀목이다”라며 “인천 경제를 선도하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정책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yhkim@skyedaily.com



인천광역시 2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주관으로 ‘2025년 인천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

“기후동행카드, 수인분당선 역사에서 구매하세요”

미금역 등 편의점 6곳 판매

수인분당선 성남 구간 역사 내 편의점(StoryWay)에서도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구매 가능한 곳은 미금역·정자역·서현역·아람역·모란역·태평역 등 성남시 수인분당선 역사에 위치한 편의점 6곳이다.

3월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 5월3일부터 수인분당선 10개 역사(가천대~오리 구간)와 경강선 3개 역사(판교~이매 구간)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졌다.

실물카드는 그동안 지하철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 또는 아이센터(1호



수인분당선 아람역사 내 편의점(StoryWay)에서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를 구매할 수 있다.

성남시

선)은 서울역~청량리역)나 서울지역 역사 인근 편의점 등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성남시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카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코레일유통과 협의해 기후동행카드를 물류센터에 입

고시키고 수인분당선 성남 구간 편의점 매장에 입고 사실을 안내하며 신속한 발주를 요청했다.

실물카드 총종은 1호선(서울역~청량리역)·2~9호선·우이신설선·신림선·김포골드라인 등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실물카드뿐 아니라 모바일카드로도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모바일터미너’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한 뒤 사용 시작일을 설정하고 충전하면 즉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와 연동해 월 이용 금액만큼 자동으로 청구되는 ‘후불 기후동행카드’ 방식도 지원된다.

김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수도권 4개 공사, 공동사업시행자 보상협의체 개최

인천도시공사(ISH)·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4개 공사의 보상업무 관계자가 참석하는 ‘제2회 공동사업시행자 보상협의체’가 2일 SH 본사에서 개최됐다.

3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번 협의체는 1분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분기별 정례 운영을 원칙으로 4개 공공기관이 순차적으로 주관하여 개최하는 방식이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지구의 보상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협의체 참여기관 간 보상업무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함께 체결됐다.

이 협약은 최근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평가의 공정성 확보 문제, 보상 관련 절차의 복잡성 및 지연, 토지소유자를 위한 제도개선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보상 전문기관 간에 사례 공유 및 공동 대응 필요성에 따라 진행됐다.

김영훈 기자 yhkim@skyedaily.com